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이 대전 본사에서 2018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 윤리경영 앞장 '청렴결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에 앞장선다.

소상공인은 청렴 및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018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김흥빈 이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 약 200여명의 결의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가 순차적 결의대회를 통해 총 649명의 직원이 청렴결의에 동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5개년 중장기 윤리경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여기에는 ▲내외부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청렴 달성 ▲스스로 점검·관리하는 청렴진단 구성 ▲부패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감사 지원 ▲윤리의식을 내

재화하는 청렴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추진과제로 '청렴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최우수 수상작으로 발굴된 '내 淸廉(청렴) 지킴이', '동행출장 여비수령 조항'을 신설한 것과 함께 ▲정책고객대상 청렴소통체계 구축 ▲고위직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 발족 등 27개 과제도 설정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 만나는 서민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서 조직 내부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청렴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계기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노하우' 나눈다

안전보건공 우수사례 사업장 전파

최근 갑질 고객문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기업의 노하우가 공유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기업의 우수 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아인텔레서비스는 '직원의 주체적인 삶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삼고 콜센터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 심리상담실을 통한 면담·심층면담·연계치료 과정을 제공하고 블랙컨슈머 응대 프로세스를 통한 전화를 끊을 권리를 부여했으며, 통화연결음을 상담사의 가족·친구가 녹음한 음성으로 바꾸고 고객들이 상담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

통체널도 구축해 접수된 고충 개선과정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접수된 고충의 93.7%가 해결됐다.

또한, 심신이 지친 상담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사내카페, 안마의자가 설치된 휴게실, 스트레스 해소존 등을 설치하고 사무실에 식물과 공기청정기를 비치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공단은 "위 사례를 통해 직원 만족율은 87.2%로 조사됐다"며 "1년 초과 근무인원의 이직율이 기존 2.2%에서 1.3%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300인 미만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에이블랜드호텔엔리조트는 'HEALING TREE PROJECT 2020'을 슬로건으로 직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감정노동 정도 파악을 위한 검사 및 개별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상담 핫라인, 웃음·미술치료, 분노조절 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농협, 농민 전용 방송 만든다

'NBS 한국농업방송' 14일 개국 김병원 농협회장, 환경TV 인수 농산물 시세정보 실시간 전달



법인이 아닌 농민 신문사의 매체 형태로 운영된다.

NBS는 도시와 농촌 간 가교 역할과 함께 농업가치를 실현하는 전문 채널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농축산물의 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가락동365', 영농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전해주는 '농업날씨', '농업뉴스' 등이다.

채널 번호는 환경TV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국과 동시에 채널이 NBS로 변경된다.

NBS 개국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경영 철학과 의중이 적극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미래농업인 육성과 농촌 활력화 등을 강조했다.

또 농협 계열사의 경우 설립 취지인 농업인 지원에 맞게 협동조합 정신과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농업인에게 존재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계열사가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NBS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로 생생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해외농업, 농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마을, 24절기를 활용한 농사정보 제공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공영홈쇼핑 'Made in Korea' 시대 개막



8월부터 100% 국산만 신규입점 기존제품 빠르면 내년초부터 국산만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시대'를 선언하고 8월부터 신규 입점 제품에 대해 100% 국산만 판매하기로 했다.

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등 기존 입점 제품 중 국산이 아닌 외산에 대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퇴출시켜 내년부터는 순수 국산 제품만 100%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본지 7월17일 보도)

공영홈쇼핑은 1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3주년 기념식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선언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산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만 100% 취급하기로 하고 3년전 닳을 올린 뒤 3년 만에 다시 '100% 국산 제품 판매'를 선포한 것이다.

공영홈쇼핑이 그동안 판매하던 농수산물은 모두 국산이었지만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절반 가량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등으로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들이었다.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시대"를 선언하고 8월부터 신규 입점 제품에 대해 100% 국산만 판매하기로 했다.

특히 의류나 생활용품, 운동기구 등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인건비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자재 공장, 또는 현지 위탁 생산한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국산이 아닌 'made in OOO' 제품을 신규 입점은 이달부터, 기존 제품은 빠르면 내년초부터 아예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의 이번 '메이드 인 코리아 선언'은 ▲국내 생산 제품만 판매 ▲우수 제품의 명품화 ▲스타트업(Start-up) 제품 판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공영홈쇼핑의 본분을 찾자는 의지에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당장 이날부터 기존 판매 및 발주 상품을 제외한 신규 해

외 OEM 상품의 판매가 중단된다"면서 "기존 상품도 협력사와의 협의로 재고 소진시 중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영홈쇼핑의 전체 판매 상품 중 20%, 식품을 제외한 공산품 기준으로 약 40% 가량이 해외 OEM 상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이날 3주년 기념사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이들의 판로 개척을 돕자"며 "우수한 유통채널을 보유한 공영홈쇼핑이 일자리 확산과 혁신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공영홈쇼핑은 아울러 ▲소비자에게 거짓말 하지 않는다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는다 ▲공정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명예선언'도 이날 함께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날씨

8월 2일

음력 : 6월 21일

수도권 날씨 39~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4/37, 동두천 25/38, 가평 23/39, 파주 25/37, 서울 29/39, 양평 26/39, 인천 18/24, 수원 28/38, 용인 28/38, 평택 26/39

해돋이 / 05:36 | 해질 / 19:4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국도로공사 온라인 국민소통단 'ex패널' 공개모집

한국도로공사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단, ex국민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ex국민패널은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혁신 및 발전방향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다.

선발된 ex국민패널은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공유, 혁신계획 실현 방향 설정, 계획 과제의 적정성 검토, 혁신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

응모는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패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나온다.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도 등 활동 성과가 탁월한 우수 패널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비가 지급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한국도로공사 온라인 국민소통단 ex국민패널

한국도로공사 새로운 변화의 열매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다.

2018. 08. 01 ~ 2018. 08. 14(2주간)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모집분야: 도로공사 혁신 및 발전방향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다.

모집방법: 온라인 공개모집

모집기간: 2018. 08. 01 ~ 2018. 08. 14(2주간)

모집장소: 도로공사 홈페이지

모집문의: 도로공사 고객지원센터